



고교생무당 맡은 김새론 액션 여전사로 변신한다

카카오TV '우수무당 가두심'서 맨몸 액션 소화

연기자 김새론이 '액션 전사'로 새롭게 거듭난다. 7월 30일 공개된 카카오TV 드라마 '우수무당 가두심'에서 고교생 무당 역을 맡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교 꼴찌들이 연이어 죽는 한 고등학교가 배경인 드라마에서 김새론은 18세 무당으로 등장에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된 모범생 남다름과 콧대를 이뤄 퇴마 활극을 펼친다.

고교생 무당이라는 신선한 캐릭터와 '퇴마' 소재의 판타지 요소를 앞세운 것도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김새론은 11년 전 출연한 영화 '아저씨'의 원빈을 떠오르게 하는 '맨몸 액션'을 부각시켜 그동안 주로 선보인 발랄한 매력과는 차별화를 뒀다. 악령이 활보하는 고등학교를 누비면서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는 것은 예사다. 뛰고, 뚫고, 넘어가 벽에 부딪히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 엮어치기도 자유자재로 한다.

올해 21살이 돼 성인으로서 내놓는 첫 단독 주연드라마를 위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셈이다. 극적인 변화를 위해 오랫동안 고수한 긴 머리카락도 단발로 째둑 잘랐다.

김새론은 "2년 만에 내놓는 드라마라 더욱 최선을 다했다"면서 "컴퓨터그래픽으로 완성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형체와 싸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액션 연기가 중점인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초반 반응은 성공적이다. 드라마는 공개 이틀 만인 1일 오후 현재까지 카카오TV에서 150만 뷰까지 조회수를 끌어 올렸다. 또 다른 OTT 플랫폼 왓챠에도 시차를 두고 공개해 보다 넓은 시청자 층을 공략하고 있다. 시원한 액션과 더불어 한여름을 겨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10·20세대가 공감할 만한 감정들"을 학업 스트레스, 성적 압박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로 그려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 2위... '킹덤:아신전' 쓴 김은희 작가

“액션보다 감정, 내 작품 중 가장 어두운 이야기”

생사초 관한 새로운 설정 소개
북방 세계관으로 가는 디딤돌
정치란 무엇인가 화두 던졌죠
아신 캐릭터, 입체적으로 그려
시즌3 키워드는 '한' 그 시작점



김은희(49) 작가의 남편이자 장항준 감독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틈만 나면 아내 자랑을 한다. "10여 년간 실패 없는 작가"라고. 이를 들은 김 작가는 "망언을 하고 다니는 남편의 입을 정말 막아버리고 싶다"고 푸념 섞인 농담을 하지만, 장 감독의 자랑은 괜한 게 아니다.

김은희 작가가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아신전'(아신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넷플릭스의 시청 통계를 집계하는 데이터 업체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아신전은 넷플릭스의 모든 영화 중에 전 세계 시청 순위 2위를 차지했다.

또 홍콩 1위, 일본·베트남·필리핀 2위, 스페인 3위, 러시아 5위를 기록 중이고 미국에서도 영화 톱10에서 8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부동의 1위를, 이전 시즌들도 10위권에 역주행하며 다시보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포브스·영국 HIT·영국 NME 등 해외 매체들은 "프로덕션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킹덤’을 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즐길 수 있는 전설 가득한 안티 히어로 이야기"라고 호평했다.

● “여기까지 올 줄 상상도 못해”

'아신전'은 조선을 뒤덮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인 생사초와 아신의 이야기를 담은 '킹덤' 시리즈의 스페셜 에피소드다. 92분 분량인 한 회차로 만들어져 시즌3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시즌2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강력한 인상을 남긴 전지현이 아신을 연기하며 극을 이끈다.

최근 온라인으로 만난 김 작가는 "시리즈는 내놓을 때마다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라는 생각한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킹덤:아신전'을 내놓은 김은희 작가는 "이미 시즌3의 결말까지 그려놓았다"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이어 "너무 짧은 분량이라서 관객 입장에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아신 뿐 아니라 생사초가 자라는 폐사군과 여진

족 수장 아이다간 등 새로운 설정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생사초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상

상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번 편은 북방 세계관으로 가는 디딤돌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좀비와 역사극을 결합한 한국형 장르물(크리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동시에 시즌마다 뚜렷한 메시지도 남긴다. 아신전에서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시즌1은 배고픔, 시즌2는 혈통이 키워드였어요. 시즌3에서 한(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그 시작이 아신 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정치란 무엇인가'로 귀결되죠.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아픈 건 피지배계층이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배고픔과 한이거든요."

일종의 에피소드를 다루다 보니 앞 시즌과 달리 속도감이나 화려한 액션은 절제됐다. 장항준 감독도 "무슨 이야기야? 난 잘 모르겠다. 또 액션이 쉴 줄 알았는데 세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아신이 왜 한을 가지게 됐는지, 극한적인 감정을 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액션보다는 감정의 깊이를 더 고민했어요. 내가 쓴 것 중에 가장 어두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복수하면서도 괴로워하는 아신을 통해 복합성과 입체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선악 구분으로 소화하지 않고 수준 높은 문제의식, 빈틈을 세련되게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김 작가는 이미 시즌3의 결말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시즌3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거친 벌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역병이 발발했을 때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또 하나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끝낸 김 작가에게 벌써 앞서 흥행시킨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시그널' 등 새 시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시그널’은 시즌1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과 의지가 있어요. 워낙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남편이 예능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부담이 커요. 정말 더 열심히 써서 욕먹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SUMMER

1000세트 한정판매



블루(1번)



네이비(2번)



딥오렌지(3번)



그레이(4번)



딥블루(5번)



오렌지(6번)



민트(7번)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골프 쿨셔츠!! 3점 39,800원

골프는 물론 외출복 근무복으로 착용가능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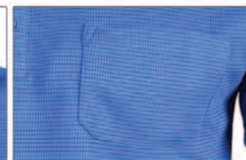
디자인, 착용감, 실용성 삼박자를 겸비한 카라 셔츠 여름 반팔은 팔목으로 인해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야 볼 쾌감이 없다. 그렇다고 고가의 반팔을 구입 하거나 부담이 크다. 여기 소비자 직거래로 중간 유통 마진을 완전 제거한 고 퀄리티의 골프 카라 셔츠가 있다. 조금은 화사함과 탁월한 심플함으로 무장한 골프 셔츠를 구입 해보는 것도 탁월한 선택일 것이다.

골프는 물론 평상복으로 착용해도 좋아 단색으로 디자인되어 활동 시 셔츠 선택이 용이하다. 너무 뽀뽀, 너무 어둡지도 않은 색상 배열이 기하학적이라 하겠다. 골프 레저는 물론 일상복으로 착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땀 발생시에도 엉거 붙음이 없으며, 항상 쾌적한 환경을 연출한다. 가슴부분 주머니 적용으로 실용성 또 한 극대화 했다.

믿을수 있는 기업 원프로튼사 독점 판매 최상의 퀄리티를 추구하며, 절제된 가격만을 고집하는 기업 원프로튼사가 독점 계약해 판매한다 올 여름 1000세트한정으로 세일하며, 한 점에 5-6만원이 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카라셔츠를 3점에 39,800 원에 판매한다 하니 구입찬스가 아닐수 없다. 제품 수령후 불만족시 100% 환불을 보장한다.



단추 하프오픈 셔츠
상뜻한 라인배색 카라



가슴포켓 부분 적용



소매 시보리 부분 적용



탁월한 신축성으로 활동이 편함

사이즈 95, 100, 105, 110
판매가 3점 39,800원 (배송비 3,000원 소비자부담)
4점 53,000원 (배송비 무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각종 신용카드 결제 가능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튼
쇼핑몰 www.OPTOP.co.kr
주문전화 1644-3606